

순천만 조각공원 졸속 추진 우려

지난해 공정성 시비 등으로 표류했던 순천만 국제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순천시 주도의 국내·외 공모로 실시될 계획이어서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점 이상 작품 구입비 고작 2~3억원 불과 예술계 "헐값 공모, 유명작가 작품 내겠다"

순천시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모형태로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내에 조각공원을 세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 조각가들은 5억원의 예산으로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10점이 넘는 작품 공모에 고작 2~3억원이 배정되는데 그쳐 수

준 있는 작품이 출품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역 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고작해야 대학생이나 신인 조각가들 만이 공모에 응함으로써 수준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 방침대로 시 홈페이지, 순천 미협 홈페이지 등에만 공모 사실을 알릴 경우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공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는 줄은 알지만 작가의 혼이나 정성이 담겨 있는 조각작품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역 예술인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조각공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 조각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에서 추진하다가 시 문화원으로 이관됐으나 지역예술 단체들의 반발로 추진 주체가 다시 시로 변경되는 등 사업 주체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 열무...봄 내음 물씬

순천시 도시동 시설하우스에서 직일은 열무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되는 순천 도시동 열무는 향긋한 봄내음을 풍겨 입맛을 돋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이것이 섬진강 강굴!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 망덕포구에서는 요즘 강굴 채취가 한창이다. 바닷물에 비해 크기와 영양면에서 월등한 강굴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급 수질을 자랑하는 섬진강 하구 망덕포구에서만 서식하며 일년에 약 3000여이 생산되고 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광양 중앙하수처리장 도심공원으로 새 단장

광양 중앙하수처리장이 도심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지난 2004년 준공된 광양시 중앙하수처리장은 부대시설로 잔디운동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족구장, 테니스장, 교통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과 볼거리 등이 있어 시민의憩터로 이용되어 왔다.

유사육장과 조류방 턴을 확장하고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심는 등 녹지공간을 늘릴 방침이다. 중앙하수처리장에서는 지난해에도 동민체육대회와 엠벨컵 대학축구 대회, 교통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과 볼거리 등이 있어 시민의憩터를 제공해 왔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Lists various reg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hone numbers.

꽃 축제 앞둔 전남 지자체 開花 시기 빨라져 '발동동'

광양 매화·구례 신수유 등 꽃망울 터뜨려 일정 고심

꽃을 소재로 매년 지역 축제를 열고 있는 전남 지자체들이 번덕스런 기후로 축제 개최 시기를 제대로 가능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오는 3월17일부터 9일간 다압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제11회 광양매화축제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올 겨울 이상 기온으로 봄이 일찍 찾아 오면서 이달 중순부터 매화가 이미 꽃망울을 터뜨려 자칫 축제 기간 매화꽃 분위기가 퇴색하지 않을까 축제 주최측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광양시는 주민들에게 이번 축제 기간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자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정해진 시기에 맞춰 준비를 다 했는데 이례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 결국 예정대로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수유꽃’ 축제를 준비 중인 구례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예년과 비슷한 3월25일부터 시작했어도 추운 날씨에 꽃이 예년만 못해 올해는 날씨를 감안, 축제 개막일을 10일이 앞당겼다. 그러나 이미 지난 주부터 산수유꽃이 피기 시작, 축제가 시작될 무렵에는 꽃이 시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매년 오동도에서 동백꽃 축제를 열고 있는 여수시도 이른 개화에 고심하고 있다. 따뜻한 날씨로 이미 동백꽃이 개화하다 못해 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는 오는 4월 2012 세계박람회 현지 실사에 맞춰 축제를 열 계획이어서 동백꽃 없는 행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예년보다 일찍 핀 것은 사실이지만 4월 실시 때까지 동백꽃이 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BTE 실시 앞둔 여수시 '엑스포 반상회' 연다

여수시가 지난해 폐지했던 반상회를 2012세계박람회 현지 실사를 앞두고 다시 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읍·면·동 통장과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반상회 존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같은 해 9월부터 반상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수시가 27일 27개 읍·면·동에서 반상회인 '주민 만남의 날' 다시 열기로 한 것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2세계박람회 현지 실사 때문이다. 반상회를 통해 시의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전달하고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지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도로 곳곳 파이코...깨지고...갈라지고 울촌산단 고갯길 '누더기'

대체도로 개통으로 대형차 통행 급증 대형사고 위험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 고갯길에 최근 통과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누더기'로 변해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선령삼거리에서 해룡면 선월리를 잇는 국도 17호선 대체우회 도로 13.2km 중 해룡면 선월리~왕지 IC간 10.9km가 지난해 19일 개통된 후 17호선의 교통 체증이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신규 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해

룡면 울촌산단 고갯길에 덩달아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고갯길은 여수산단을 빠져 나온 대형 트레일러와 유조차 등이 쉬지 않고 지나가면서 20여개가 넘는 흠이 노면 곳곳에 패어 있다. 큰 흠은 길이가 1.5m에 너비 50cm, 깊이는 10cm 정도로 이 흠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갑자기 발견한 흠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들은 그 충격에 타이어가

파괴돼 2차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갯길을 통과하기 직전의 해룡 2교는 교각 난간 3~4곳이 수개월째 부서진 채 방치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순천시 관계자는 "도로 전체에 덧댄주기 포장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임시로 흠을 메우고는 있지만 워낙 큰 차들이 많이 다니 역부족이다"며 "내달 초 전면 보수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지역 14개 로타리클럽 미혼모돕기 성공·장학금 전달

국제로타리 3610지구 3·4지역인 순천 14개 클럽(회장 강문일)은 지난 23일 순천 로양 웨딩홀에서 합동 주례모임을 갖고 미혼모돕기 성공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순천지역 14개 로타리 클럽은 미혼모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살로메 나눔터 김윤아 원장에게 1천2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각 클럽에서 추천한 중·고·대학생 58명에게 2007 전반기 장학금 2천645만 원을 전달했다. 순천 로타리클럽은 지금까지 2만6천여명에게 41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매주 금요일은 TV 끄고 책 보는 날'

순천, 내달부터 캠페인 전개
일주일에 한번은 TV를 끄고 가족과 함께 책보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운동이 전개된다. 순천시는 26일 '매주 금요일은 책과 함께 하는 TV 안보는 날'로 정해 오는 3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9일까지 참여 가족 신청을 받아 인증서를 주는 한편 이후 사례 발표회를 갖고 우수 가족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과 함께

'책 읽는 가족' 문패를 달아 줄 예정이다. 금요일은 TV 안보는 날로 정한 이유는 주5일제 확대로 직장인 가정들이 금요일 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 가족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온 가족이 모여 TV를 끄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자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이 운동이 도서 문화 확산과 함께 가족애를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Real estate advertisements section containing various listings for properties, commercial spaces, and land. Includes sub-headers like '대인동삼일부동산', '정우부동산',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국민공인중개사', '무등공인중개사', and '알파공인중개사'. Each listing provides details about location, size, and price.